법제처 소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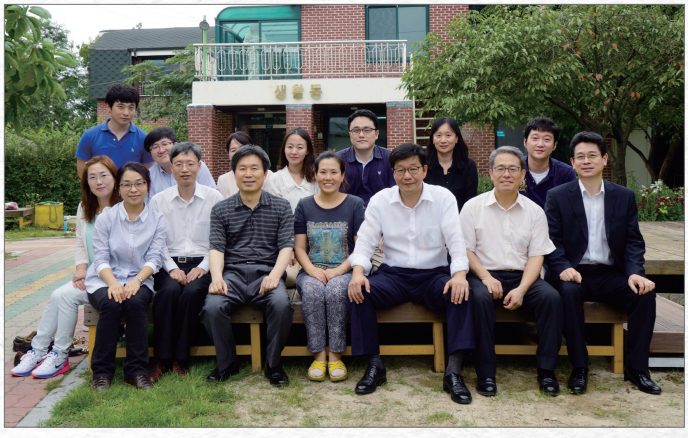
법제처장,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

- 법제처(처장 제정부)는 8월 27일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나루터공동체를 방문하여 거주자들과 함께 하는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.

-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19명은 생활관 청소 및 주변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였으며,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와 관계자를 응원했다.

- 나루터공동체는 천주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공동거주시설로, 법제처는 2012년 10월부터 매월 직원들이 1인 1나눔 계좌를 통해 나루터공동체를 후원하고 있다.
  ···› 이후 나루터공동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.

- 제정부 처장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


September 2014

법제처,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

- 법제처(처장 제정부)에서는 9월 2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.

- 법제처는 2011년 통인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매년 명절이면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의 발전과 지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갖고 있다.

- 올 추석을 앞두고도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떡 · 과일 · 야채 등 추석에 쓸 제수용품과 다양한 간식거리를 구입했다.

- 상인들은 명절마다 방문하는 법제처 직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푸짐하게 덤을 얹어 주는 등 넉넉한 인심을 나누고 법제처 직원들과 따뜻한 정을 주고받았다.

- 제정부 처장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곧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,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물품 구매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
